

지역 소식통

김제, 여성폭력 추방주간
폭력예방 캠페인 펼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9일,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김제터미널 사거리에서 여성폭력 방지의 의미를 되새기며 '폭력 ZERO 사회' 조성을 위한 범시민 대상 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성폭력 추방주간, 가정폭력 추방주간, 성매매 추방주간을 통합하여 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으로 정한 정부방침에 따라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김제시성폭력상담소, 김제경찰서, 김제시가족센터,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 등 민·관·경 50여 명이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가족센터
부부관계 증진교육

완주군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 신혼부부와 10년 이상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 증진 교육을 열어 호응을 얻었다.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진행된 교육은 다양한 활동으로 부부관계를 향상 하는데 기여했다.

우선 다문화 신혼부부 대상 교육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문화 이해교육, 소통교육, 부부가 함께하는 부부요가와 향기테라피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뤄졌다.

또한, 10년 이상 기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소통교육, 대화코칭, 원예체험,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요가활동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부부는 "가정 내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배우자의 행동이 성향과 문화차이에 따른 것임을 이해했다"며 "작은 행동도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천주교 유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완주군, 최초 순교자 유해 발견 '이서면 남계리'·천호성지 등 자원 풍부

완주군이 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 발견지로 확인된 이서면 남계리 유적을 포함해 지역 내 천주교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완주군은 초기 천주교 박해 과정의 순교자 자취와 신앙공동체 성립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탁월한 곳이다.

실제 이서 초남이성지와 비봉 천호성지, 화산 퇴재성당지 등 역사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군은 지역 역사 정립 차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역사적 가치 규명에 노력해왔다.

이같은 노력 끝에 지난 2021년 초남이성지 내 완주 남계리유적에서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 유해가 발견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오는 2027년 가톨릭 청소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됨에 따라 교회의 방한도 확실히 되면서 완주군 역사 자원이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군은 세계유산 등재 대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전북도 기념물



완주군이 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 발견지로 확인된 이서면 남계리 유적을 포함해 지역 내 천주교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사진=완주군청 제공)

인 완주 남계리유적과 완주 퇴재성당지의 국가지정유산 신규 지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지정유산 지정 후 이를 발판 삼아 세계유산 등재까지 추진한다는 목표다.

군은 향후 2024년 완주 남계리유적의 국가 사적 지정 신청서를 전라북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한지, 마한의 역사 등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며, "완주군 천주교유산은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는 만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토대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순항

친환경 자동차 이용객들 접근성·편의성 향상 기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50 탄소중립과 내연기관 차량의 전동화 촉진을 위해 올해 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80기를 설치하였고 먼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충전기 18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총 1,050대(승용 488대, 화물 562대), 공용충전기 보급대수는 314기로 충전기 1대당 전기가차가 3.34대 보급되어 비공용 개인 충전기를 사용하는 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지

만, 향후 전기자동차 시대에 발맞춰 공용 충전기를 공영주차장 등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하동 414번지에 설치 예정인 수소충전소는 전국 최초로 국유지를 활용하여 구축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친환경자동차법에 의거하여 국유지에 친환경차 충전시설 구축 시에는 영구시설물 축조와 20년 이상 장기 사용 허가가 가능하며, 임대료는 80%까지 감감 할 수 있고, 사업부지 확보에 따른 난관 해소와 부지매입 비용을 절감하는 등 큰 장점이 있다.

수소충전소 위치는 김제 시내 근교에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하고 충전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적지에 위치해 있으며, 충전기 2기 설비용량 64kg로 시간당 승용차 12대, 버스 4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충전소 규모로 25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제시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수소차 42대를 보급하였으며, 수소충전소가 준공되는 25년부터 승용차 연 100대와 수소버스, 수소 청소차량 등을 보급하여 내연기관차의 전동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역량교육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8~29일,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 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와 기업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참여자 역량강화교육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직장동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대화의 기법

및 커뮤니케이션' 과 정보화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웹 GPT와 스마트워크 업무활용법' 강의와 문화체험 등을 진행하였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에서 청년일자리 확대를 통해 지역문제를 회복하고, 지역일지리를 창출하는 사업

으로 2년 동안 근속한 청년들은 3년 차에 분기별 250만 원씩 1년간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극대화함으로써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 내 종자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29일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기 전, 길거리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자 민·관이 환경 정화 활동을 시행했다.

김제시, 겨울나기 환경 정화 '구슬땀'

방치 쓰레기, 낙엽 집중 수거로 길거리 환경 정화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9일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기 전, 길거리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자 민·관이 나서 환경 정화 활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대청결 운동은 겨울바람에 날린 쓰레기가 곳곳에 방치돼 있어 미관에 좋지 않았던 골목길과 유동 인구가 많은 중심 상가, 공원을 중심으로 청소 구역을 지정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내 집, 내 가게 앞, 내가 청소하기(내내내) 캠페인 홍보를 병행 추진

해 시민들이 직접 청결한 거리 환경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낙엽도 스스로 수거하여 배수로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날린 쓰레기가 곳곳에 방치돼 있어 미관에 좋지 않았던 골목길과 유동 인구가 많은 중심 상가, 공원을 중심으로 청소 구역을 지정하고 쓰레기를 수거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내 집, 내 가게 앞, 내가 청소하기(내내내) 캠페인 홍보를 병행 추진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청소년 4차 산업 체험부스 '인기'

드론·코딩·VR·로봇·전기차 등 프로그램 다채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경험의 폭을 넓히고자 4차 산업 체험부스를 진행해 인기를 끌었다.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체험은 '찾아가는 청소년 4차 산업 체험부스'를 주제로 4차 산업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 및 체험을 지원해 디지털 사고와 분석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군산시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 이론 교육과 체험교육으로 진행됐으며 드론, 코딩, VR, 로봇, 전기차 만들기 체험 등이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김모 청소년은 "평소 접해보지 못한 기계들을 만져보고 직

접 작동해볼 수 있어서 신기했다"며 "더 많은 분야를 체험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최정선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청소년들이 4차 산업 체험 경험을 토대로 창의와 도전정신 함양을 통해 미래를 선도할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건강한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중학생(1~2학년)을 대상으로 체험과 교과학습, 주중·주말체험, 급식 및 귀가차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